

교복문제를 제일가는 중대사로

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제시해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한 일군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학생교복생산실태에 대해 물으시였다.

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새옷을 다 해입혔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시름을 놓으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.

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학생들의 교복문제를 놓고 마음쓰신 위대한 어버이,

진정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을 이 땅우에 수놓으신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.